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50

▶ 51회 예고
숫빠라까 상인수장과 데바는 연회에서 못다 한 얘기를 정원에서 주고받는다. 그때 비베깐난다 사문과 아쇼까가 합석한다. 그들은 비베깐난다 사문으로부터 붓다에게 짧은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된 바히야 다루찌야의 얘기를 듣는다.



숫빠라까 출신 뿐나, 붓다 제자가 되다

아쇼까 순행단 일행은 숫빠라까 상인수장 저택에서 묵기로 했다. 경비대장은 군사 두 명을 데리고 아쇼까가 묵게 될 방을 미리 가서 점검했다. 방은 크고 이집트와 페르시아에서 수입한 옷장, 책상, 탁자와 의자 같은 가구들의 조각이 정교했다.

연회가 끝나자마자 아쇼까는 저택 2층 방으로 올라갔다. 상인수장의 저택은 'ㅁ' 자 형태로 가운데는 정원이었다. 경비대장은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이 머물 방도 살폈다. 비베깐난다 사문의 방 역시 2층으로 정했다. 데바 상인수장 방은 비베깐난다 사문 바로 옆에 있었는데, 데바는 바로 방으로 올라가지 않고 숫빠라까 상인수장과 황금야자수가 우뚝우뚝 서 있는 정원으로 나가 의자에 앉았다. 연회장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더 나누기 위해서였다. 보름달 달빛에 황금야자수 이파리들이 반짝였다.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데바가 말했다.

"부왕님께서 아주 흡족해하셨소. 더욱이 정찰조 군사를 보살펴주신 것에 대해 저 역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소."

"해적의 만행이 지나쳐서 그랬던 것이오. 그런데 부왕께서 오늘 뜻밖의 말씀을 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소."

숫빠라까 상인수장은 좀 전에 아쇼까가 내렸던 명을 상기하며 말했다. 수나빠란따국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무역권을 그에게 주었으며 다른 지역의 교역은 데바와 상의해 결정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부왕님께서 명하셨으니 지금보다 더 큰 성업을 이룰 것 같소."

숫빠라까 상인수장은 데바가 교역분소를 숫빠라까에 두는 것을 허락했다. 데바 역시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웃자인에 교역분소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마우리아국에 복속된 소국들끼리 교역하는데 거물급 두 상인수장이 상생의 첫발을 뗀 셈이었다. 그때 황금야자수 사이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다. 데바는 단번에 비베깐난다 사문인 것을 알았다. 데바가 일어나서 비베깐난다 사문에게 갔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비베깐난다 사문을 서서 맞이했다. 데바가 말했다.

"비베깐난다 사문님이오. 사문께서는 숫빠라까를 오시고 싶어 했소."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목소리를 높여 반색했다.

"사문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수장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의 하인이 대리석의자 가운데에 놓인 탁자에 따뜻한 짜이가 담긴 주전자와 잔을 들고 왔다. 하인이 잔에 짜이를 따르자 재스민 향이 진하게 코끝을 자극했다. 하인이 짜이에 재스민 꽃가루를 넣어 끓였기 때문이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말했다.

"사문이시여, 언제든 숫빠라까에 오십시오. 저희 집이 편안하시다면 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소승은 이곳에 절터가 있다면 찾아가서 머물면 됩니다."

비베깐난다가 숫빠라까 상인수장의 호의를 거절하자 데바가 말했다.

"사문님께서는 오늘은 별 수 없이 이곳에서 머물지만 원래는 절이나 절터가 아닌 곳에서는 주무시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바르마티강 강가에 뿐나라마가 있습니다. 지금은 폐허나 다름없지만."

비베깐난다 사문이 '뿐나라마'란 소리에 놀란 듯 벌떡 일어났다. 자신이 흠모했던 뿐나 존자의 이름을 딴 사원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정말로 뿐나라마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지대 천민들이 사는 곳에 절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뿐나라마라고 부릅니다."

데바는 비베깐난다 사문이 순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에게 한 말을 떠올렸다. 기회가 온다면 고타마 붓다의 제자인 뿐나 존자의 고향 숫빠라까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다. 데바가 숫빠라까 상인수장에게 물었다.

"고타마 붓다의 제자였던 뿐나 존자를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2백 년 전의 일입니다."

하인들이 큰 청동 화로와 숯을 가져와 불을 피웠다.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 사용하는 화로였다. 화기가 금세 세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다. 하인들이 다시 세 사람 앞에 놓인 잔에 짜이를 따랐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이 말했다.

"사문이시여, 뿐나 존자가 어떤 분인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수장님들을 위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청동화로불의 열기에다 뜨거운 짜이를 마신 세 사람은 차가워지는 밤공기를 잊었다. 보름달은 중천에 떠서 세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숫빠라까 상인수장의 검은 얼굴이 달빛에 더욱 번들거렸다. 이윽고 비베깐난다 사문이 설법하듯 합장한 뒤 출가 전의 뿐나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뿐나는 아버지와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신분 때문에 아버지가 죽자 형제들이 뿐나를 멸시했지요."

형제들은 뿐나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집에서 쫓아냈다. 뿐나는 알거지나 다름없었지만 상인이었던 아버지 친구를 찾아가 일자리를 얻었다. 아버지를 닮아 언변과 수완이 좋은 뿐나는 돈을 모아서 곧 독립했다. 작은 자본으로 전단향나무 장사를 했는데 크게 성공했다. 아버지처럼 해외무역을 해도 될 만큼 자산가가 되었던 것이다. 뿐나는 배를 타고 이집트도 가고 오만이나 페르시아를 다니면서 무역을 했다. 해상무역으로 거부가 된 뿐나의 명성은 꼬살라국 사왓티까지 소문이 났다. 어느 날 꼬살라국 사왓티 상인들이 뿐나를 찾아왔다. 뿐나의 큰 배는 웬만한 파도나 풍랑에도 견디는 상선이었다. 드디어 뿐나는 사왓티 상인들과 함께 배에 교역품을 싣고 숫빠라까를 떠났다.



뿐나는 이번에야말로 마지막 항해라고 생각했다. 해상무역이 부를 축적하기에는 용이했지만 한번 떠나면 몇 달 간의 항해를 견뎌야 하는 고단함, 해적의 출현과 갑자기 맞닥뜨리는 풍랑 등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상선이 숫빠라까 항구를 떠난 지 며칠 만이었다. 뿐나는 사왓티 상인들이 다른 나라 상인들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사왓티 상인들은 아침저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무언가를 소리 내어 읊조리곤 했다. 그날 밤, 뿐나는 사왓티 상인들 중에 한 명을 불러서 물었다.

"함께 모여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것이오?"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을 외우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두 수닷타 장자의 권유로 고타마 붓다께 귀의한 자들입니다."

뿐나는 수닷타 장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였으므로 상인들의 말을 믿었다. 뿐나가 물었다.

"고타마 붓다는 어떤 분이오?"

"사끼야족으로 고타마 싯다르타 태자일 때 출가하여 6년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로병사를 초월해버린 그분을 고타마 붓다라고 부릅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요? 고타마 붓다께서는 어떻게 해탈했다는 말이오?"

"예, 우리들은 오직 고타마 붓다께서만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해탈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뿐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권력이 있더라도 결코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없는 법인데, 고타마 붓다만이 생로병사를 해탈했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고타마 붓다는 어디에 계십니까?"

"코살라국의 사왓티 근교에 있는 제타숲에서 수닷타 장자가 지어 바친 사원에 머물고 계십니다."

사왓티 상인들로부터 고타마 붓다의 이야기를 들은 뿐나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결심했다. 거래로 정신이 없었던 바빌론에서도 그의 마음은 확고부동했다. 숫빠라까로 돌아가서는 고타마 붓다가 머물고 있는 사왓티로 가기로 작정했다. 고타마 붓다를 한 번 만나봐야만 직성이 풀릴 것만 같았다.

몇 달 후. 사왓티 상인들과 함께 숫빠라까로 돌아온 뿐나는 곧 자신의 저택과 땅은 믿을 수 있는 친척에게 맡기고 낙타와 말, 배 등은 그동안 자신에게 헌신했던 집사와 충직한 하인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런 뒤 사왓티 상인들을 따라서 고타마 붓다를 만나기 위해 꼬살라국으로 떠났다. 마침내 뿐나는 사왓티에 도착해서 수닷타 장자부터 만났다. 평소에 편지를 주고받았던 수닷타 장자는 뿐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먼 길을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소. 어서 오시오. 사왓티에 교역소라도 내려고 오셨습니까?"

수닷타 장자보다 어린 뿐나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이번에 온 까닭은 장사 때문이 아닙니다.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자 왔습니다. 수닷타 장자시여, 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오. 고타마 붓다께서는 지금 제타와나(기원정사)에 계신다오."

두 사람은 고타마 붓다가 머물고 있는 제타와나로 갔다. 마침 고타마 붓다는 우안거를 나기 위해 제타와나에 와 있었다. 수닷타 장자의 안내로 고타마 붓다를 친견한 뿐나는 그날부터 제타와나에서 머물렀다. 빗줄기가 쉬지 않고 퍼부어 사왓티와 제타와나를 오갈 수 없었다. 붓다의 제자들 중에서 지혜가 뛰어났던 사리뿟따가 뿐나를 각별하게 배려해주었다. 결국 뿐나는 우안거가 끝나기도 전에 탐진치를 여읜 아라한이 되었다. 드디어 우안거가 끝나자 각자 가고자 하는 곳으로 떠날 날이 되었다. 그때 고타마 붓다가 뿐나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붓다시여, 저는 고향인 수나빠란따국에 가서 불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타마 붓다는 그곳 사람들이 몹시 사나운 기질을 지녔다고 소문을 들어왔기 때문에 걱정했다.

"뿐나여, 그곳 사람들 중에는 거친 이들이 많다고 하던데, 만약 그들이 너에게 이교도라고 조롱하거나 험담한다면 어찌 하겠느냐?"

"붓다시여,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수나빠란따 사람들이 착하구나. 주먹으로 나를 때리지는 않으니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가.' 하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고타마 붓다가 다시 물었다.

"뿐나여, 만약 그들이 너를 주먹으로 때린다면 너는 어찌 하겠느냐?"

"그때는 '수나빠란따 사람들이 착하구나. 나에게 더러운 흙덩어리를 던지지 않으니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가.'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너에게 흙덩어리를 던진다면 그때는 어찌 하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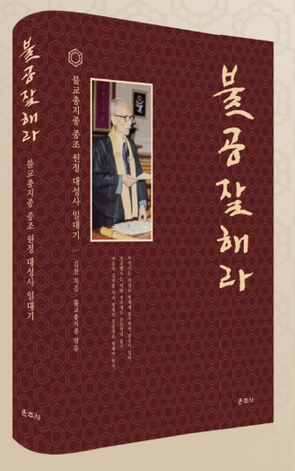
"그때는 '수나빠란따 사람들이 착하구나. 몽둥이로 나를 두들겨 패지는 않으니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가.'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고타마 붓다가 또 물었다.

"그렇다면 뿐나여, 만약 그들이 몽둥이로 너를 두들겨 팬다면 그때는 어찌 하겠느냐?"

"그때는 '수나빠란따 사람들이 착하구나. 칼을 가지고 나를 해치지는 않으니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가.'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고타마 붓다는 뿐나의 인격과 전법의지를 믿고 허락했다. 무엇보다 묻는 말에 물이 흐르는 듯 대답하는 그의 설법 능력이라면 수나빠란따국에 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것이다. 고타마 붓다의 예감대로 뿐나는 수나빠란따국 숫빠라까로 가서 경이롭게 전법을 했다. 예전 자신의 땅을 뿐나라마로 조성한 뒤, 우안거 기간에 5백 명을 불법에 귀의시켰다. 5백 명 중에는 해외무역을 할 때 데리고 있었던 집사와 하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뿐나는 우안거가 끝나갈 무렵 알 수 없는 중병으로 눈을 감았다. 불행한 일이었다. 뿐나의 죽음은 숫빠라까 불교가 일찍 쇠퇴한 이유가 되고 말았다.〈계속〉

창종 50주년을 맞은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잘해라
한국 정통 밀교의 맥을 잇고, 현대 한국 밀교를 중흥시킨 원정 대성사의 삶과 수행, 가르침을 담은 최초의 책!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밀교에서 중생구제의 답을 찾은 원정 대성사의 일생, 정진과 체험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김천 지음/불교총지종 엮음/국판/양장/284쪽/값 15,000원

「원효센터」를 개설하여 오로지 원효 연구와 강의에 전념하고 있는
공파 스님이 펴낸 『대승기신론 소별기』 해설서!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1~5 (전7권 예정)
大乘起信論 海東疏 血脈記
마명보살의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의 정수와 핵심을 담은 기본 교과서이다! 원효대사의 『해동소』는 기신론을 일심으로 풀어내 수많은 주석서 중 으뜸으로 꼽힌다! 공파스님의 『혈맥기』는 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아주 쉽게 풀어낸 최고의 해설서이다!
기존 해설서들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쉽고도 가슴에 쏙쏙 들어오는 해설! 그러면서도 『기신론 소별기』의 정수를 온전히 맛볼 수 있는 책!

공파 스님 역해/신국판/양장/1권 392쪽, 20,000원
2권 424쪽, 20,000원/3권 384쪽, 20,000원
4권 428쪽, 20,000원/5권 468쪽, 2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